

‘用에서 体로 눈 돌리는 것’ 성철사상

5월 24일 백련불교문화재단 제6차 성철 학술포럼

성철 스님이 밝힌 돈오돈수에서의 견성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이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제6차 성철 스님 포럼 ‘돈오돈수와 퇴옹성철의 수증론’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언쟁을 막고 선 수행 풍토를 다시금 펼쳐자는 목소리가 모아졌다.

외국인 가톨릭 신부로서 성철 스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명원 서경대 교수는 ‘돈오돈수의 견성과 구경각’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성철 스님이 돈오돈수를 강조하신 것은 올바른 견성(見性)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스님은 최종 단계에서만 깨달음을 논할 수 있다는 구경각을 통해 깨달음에 대한 언어적 소모를 막고자 했다”고 말했다. ‘구경각’은 수행이 원만하여 궁극적이고 완전한 지혜를 얻는 경지를 말한다.

서 교수는 구경각에 대해 “모든 집착과 미세망념까지도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구경각은 유명한 위빠사나 명상법 스승들과 그리스도교도의 권위 있는 신비가들도 그 가능성이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명원 교수는 성철 스님의 견성 체험이 원인이 없는 ‘비언어적 순수한 의식의 체험’인 만큼 그 체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고 토론했다. 서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성철 스님은 ‘역설의 화신(化身)’이란 별명을 가질 정도로 역설적 화법을

구사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화두참구 만이 그 불가사의한 체험을 이끌 수 있다”며 “한국불교사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불교 역사상에서까지도 좀처럼 넘보기 힘든 고유한 역할을 했던 성철 스님은 육조 해능과 같은 스님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했다.

선수행 풍토 다시 펼쳐자 한목소리

박성배 “문자문화 흥풍 이유 있어”

서명원 “수행 펼친 역할 인정필요”

윤원철 “오매일여 취지 이해해야”

이제 수행 자체에 눈을 돌려야 성철 스님의 출가제자였던 박성배 뉴욕 주립대 교수는 성철 스님이 불림문자 운동을 논리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면서 ‘행생 사람만 속이다가 이제 떠난다’고 고백하셨는데 이는 당시까지 포함해 문자문화를 고발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성철 스님은 《선문정로》서문 첫 구절에서 ‘고금 선지식들의 현언묘

구(玄言妙句)가 모두 눈 속에 모래를 뿌리는 짓들’이라고 혹평했다”고 스님의 입장을 설명했다.

“구구한 잡꼬대가 여찌 이렇게 많은고. 둥근 달 밝게 비친 맑은 물결에 뱃놀이 장단 맞춰 금언어 춤을 춘다.” 박 교수는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래 용(用)에 눈길을 맞춰왔다. 이제 우리는 체(體)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이것이 성철 스님이 강조하신 ‘돈오돈수’ 사상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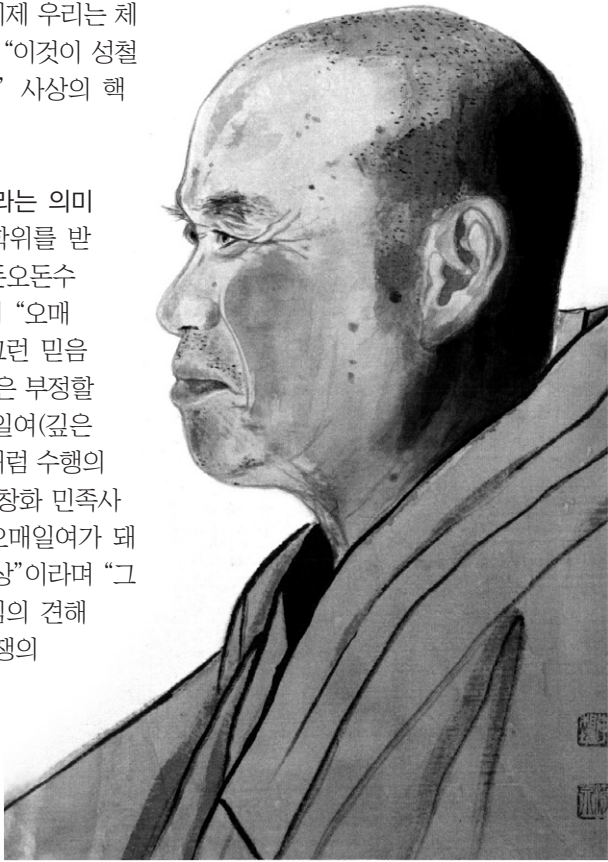
오매일여 진위 떠나 정진하라는 의미 ‘선문정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윤원철 서울대 교수는 ‘돈오돈수와 오매일여’란 주제를 통해 “오매일여의 실제 여부를 떠나 그런 믿음이 정진의 에너지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매일여(깊은 잠에 들더라도 깨어있을 때처럼 수행의 자세를 유지하는 경지)는 윤원철 민족사 대표가 “화두참구 상태가 오매일여가 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분별망상”이라며 “그렇게 오도된 데는 성철 스님의 견해가 역할을 했다”고 주장, 논쟁의 불을 붙인 바 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해 “오매일여는 화두 참구하는 수좌들의 자기 점검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성철 스님의 목적은 깨달음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게 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성철 스님이 선사임을 염두에 두고 법문의 취지와 의도의 맥락 속에서 왜 그리 하였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금강경》 현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자현 스님, 5월 19일 한일불교유학연구회 세미나서

“《금강경》 안에 개인화된 현대문화가 내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대 젊은이들에게 맞는 《금강경》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 자현 스님은 한일불교유학연구회(상임공동대표 원택)가 5월 19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에서 개최한 ‘조계종 종지종통의 근원적 재인식’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자현 스님은 이날 발제에서 “남종선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이 집단적인 북방문화에 비해 개인적인 남방문화를 대변하고 있다”며 “서구화의 과정에서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현대 젊은이들에게 가치 기준을 재창조 하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현 스님은 “《금강경》이 장래에서 (아

미타경) 보다 더 독송되고 이차, 개업 등 사회현장에서도 널리 읽히는 것은 연기의 깨달음에 의하면 모든 현상이 해결 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라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가치 속에서 항구적 율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자현 스님은 “《금강경》의 개발은 모두의 율음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행복론의 완성과도 통할 수 있다”며 “포교원 주관 하에 여러 판본 대조를 통해 《표준금강경》이 완성됐지만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금강경》은 현대적 관점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 서양철학과 만나다

6월 1일 동국대 불교문화학, 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한국 고승들의 사상을 서양 철학자들의 사상과 비교 대조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중욱)은 6월 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와 서양철학’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고대에서 근현대기까지 한국 고승들의 사상을 서양철학의 여러 분야와 비교·분석한 발표들이 진행 된다.

학술대회에서는 △한자경 이화여대 철학과 교수가 ‘신라 원족 스님의 유식사상과 독일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 비교’ △김중욱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가 ‘신라 원효 스님의 불교사상과 독일 하이데거 철학사상의 상호관계’ △권서용 부산대 철

학과 강사가 ‘신라 의상 스님의 화엄철학과 영국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 비교’ △김영필 대구고대 다문화교육센터 전임 연구원이 ‘고려 지눌 스님의 문점사상과 미국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비교’를 각각 발표한다.

또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만해 스님과 독일 니체의 불교이해의 상동·상이점’ △홍창성 미국 미네소타주립대 교수가 ‘성철 스님과 영국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을 비교분석해 발표한다.

불교문화연구원 “한국 고승들의 사상이 현대 철학자들의 사상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관점에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세계사상사에서 한국불교의 위상을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민간 문화재 재단 설립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환수 국제회의 등 개최예정

해외 소재 문화재 14만 9000여 점에 대해 문화재청이 민간재단을 설립해 환수작업을 펼치기로 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문화재 환수, 활용 민간 전담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7월 중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민간 분야의 장점을 활용해 정부 차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환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이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과 긴밀한 사전 협력체계를 상시 유지하는 한편 각 국의 환수 전문가와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을 초청해 문화재 환수를 위한 국제회의 등을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10월 중 문화재 환수 전문가 국제

회의인 ‘서울 컨퍼런스’를 연다.

한편, 문화재청의 국외문화재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는 14만 9126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8천여 점이 증가했다. 지금까지 환수된 우리 문화재는 지난해 일본에서 돌아온 외규장각 도서 297책과 일본 궁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 1천 205책을 포함해 9749점이다.

문화재청은 해외 문화재 현황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국외문화재 실태조사’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 또 문화재청은 국외소재 문화재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리랑 로드’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한국불교사 기술의 문제’ 포럼

한국불교사를 어떻게 기술 할 것인가? 한국불교사 기술에 대한 학설을 총괄해 다루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6월 2일 오후 2시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가지 문제들’을 주제로 제1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가지 문제들’

△김준석 한국국학진흥원목판연구소장이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제’ △김용태 동국대HK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주제와 쟁점’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학통과 인물’을 주제 발표한다. 세미나에서는 ‘사관’과 ‘주제’, ‘학통’과 ‘인물’ 등 기술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02)2260-3583

노덕현 기자

‘다문화사회와 불교’ 학술세미나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객만연·박문현)는 6월 3일 오후 1시 양산 통도사 반야암에서 ‘다문화사회와 불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지안) 개원을 기념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준호 부산대 박사가 ‘다문화 담론과 불교정

신·초기불교 입장에서’ △윤종갑 동아대 교수가 ‘원용무애와 불교 다문화·대승불교 입장에서’ △김선임 동국대 박사가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불교적 대안’ △김영필 대구교육대 다문화교육센터 전임 연구원이 ‘한국적 다문화 교육과 불교’를 각각 발표한다. (055)382-3211 노덕현 기자

부산 장안사 대웅전 보물 지정예고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5월 24일 부산 시 기장군 장안사(長安寺) 대웅전을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장안사는 신라 문무왕 13년(673)에 원효대사가 창건해 ‘쌍계사’로 불리다 예장왕(809) 이후 ‘장안사’로 불린 사찰이다. 임진왜란 당시 소실돼 조선 인조 8년(1631) 의월 스님과 인조 16년(1638) 태

의 스님이 각각 중창했다.

현재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7호인 ‘장안사 대웅전’은 건물의 중건과 중수연대가 명확히 규명된 부산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건축물로서, 곡선이 강한 지붕과 공포의 짜임새, 창호 구성 등이 건축양식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6월 4일까지

◆개강일시 : 2012년 6월 5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나눔과 공생으로 큰 하나 되어가는 공생실천 캠페인

‘공생장터’

법우님들의 경기 부양과 재능 나눔을 위하여 현대불교 협찬으로 공동 운영 쇼핑몰 ‘공생장터’를 운영합니다.

법우님 또는 신행단체에서 생산하시는 제품과 상품, 농산물, 문화 활동, 재능과 기능 등 홍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천여 개의 품목을 상세하게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며, 간단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품목은 사진작업과 온라인 이미지 작업,

쇼핑몰 주문 및 배송관리, 행정업무 등을

본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 홍보와 함께 천여 명의 공생인들과 신행단체들이 여러분의 재능과 상품을 홍보하여 드릴 것입니다.



참가 자격: 불자 및 각 종 신행단체 문의: 070-4122-0041 공생장터 www.gongseong.com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